인문연구 제97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7, No. 1, pp.249~277
http://dx.doi.org/10.21211/JHUM.97.9

〈아웃로 킹〉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의 전유

홍은숙*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역사적 사실과 역사영화
3. 각색자의 관점과 새로운 영웅서사
4. 역사 영화와 수용의 맥락
5. 나오는 말

【국문초록】

이 글은 〈아웃로 킹〉의 '역사 영화'로서 차별성을 강조하는데 있어서 역사를 영화화하는 한 가지 방법론을 '역사적 사실의 전유'에서 찾는다. 또한 이 글은 로버트 브루스를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의 영웅으로 서사화하려는 '각색 의도'와 '수용 관점'에서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역사 영화의 입체성을 고찰한다. 역사적 사실의 전유와 역사의 영화화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관객의 수용과 판단,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부교수

새로운 장르 개척, 연속적 창작 활동, 분포의 다양성 등을 판단 준거로 삼는다.

〈아웃로 킹〉은 역사적 사실의 전유를 통해 아래로부터 '시민혁명적 독립투쟁'과 '왕위계승적 독립투쟁' 사이에서 갈등하는 브루스에게 새로운 영웅서사를 부여한다. 〈아웃로 킹〉은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브레이브하트〉의 영웅서사를 다차원적으로 전유한 역사 영화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웃로 킹〉은 여러 재현 양식과 텍스트들의 인터텍스트다.

역사 영화의 상호텍스트성은 수용의 맥락에서 완성된다. 독립투쟁의 역사가 있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독립투쟁 역사 영화 관련 비판은 역사 왜곡 너머 미학적 힘을 갖는다. 역사적 사건을 전유하여 시대정신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문화횡단적 관객들은 새로운 결론에 도달한다. 즉 역사 영화의 현지화는 현재성 공감으로 완성된다. 〈아웃로 킹〉은 유동적 텍스트의 힘과 인터텍스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코틀랜드 독립투쟁 영웅서사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역사 영화로 자리매김 한다.

주제어: 〈아웃로 킹〉, 유동적 텍스트, 역사적 사실, 역사 영화, 전유

1. 들어가며

데이비드 매캔지(David Mackenzie, 1966-) 감독의 〈아웃로 킹〉(*Outlaw King*, 2018)은 영국 중세 역사를 바탕으로 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의 전쟁 영화다. 〈아웃로 킹〉은 14세기 영국이라는 시간적 배경, 하이랜드(Scottish Highlands)를 포함한 스코틀랜드라는 공간적 배경,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복속시키려는 역사

적 배경에서 극적 행동이 전개된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은 역사적 사실의 전유라는 극작 방법을 통해 관객들의 지속적 관심을 받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같은 영화가 다르게 그리고 다채롭게 감상될 수 있고, 같은 역사적 사건이 영화마다 다르게 재현되고 평가된다.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문화예술 분야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담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역사 영화의 입체성은 이러한 입장과 해석의 관점에서 완성된다.

〈아웃로 킹〉은 〈브레이브하트〉(*Braveheart,* 1995)와 함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얽히고설키는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 영화다. 〈아웃로 킹〉은 〈브레이브하트〉의 후속작으로 일컬어질 만큼 연속선상에서 감상할 만한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을 다룬 역사 영화다.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아웃로 킹〉은 영화와 역사의 교차,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교차, 〈브레이브하트〉와의 교차, 각색 방법의 교차,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사에 길이 남을 상반되는 두 독립투사들의 교차를 통해 새로운 영웅서사의 부상을 알린다.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을 다룬 〈브레이브하트〉와 〈아웃로 킹〉에는 여러 역사적 인물들이 동시에 등장한다. 에드워드 1세(Edward I of England, 1239-1307), 웨일스 왕자(Prince of Wales, 후일 에드워드 2세, 1284-1327), 그리고 로버트 브루스(Robert Bruce, Robert the Bruce, 1274-1329)는 주요 등장인물들이며 두 영화 모두 등장한다. 반면, 〈브레이브하트〉의 주인공 윌리엄 월리스(William Wallace, 1270-1305)는 〈아웃로 킹〉에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아웃로 킹〉의 극적 구성과 긴장감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며 주인공 브루스에게 깊은 영감과 자극을 준다.

극작 방법과 시각적 효과에 있어서도 〈아웃로 킹〉은 교차를 통

해 차별성을 강조한다. 〈아웃로 킹〉에서 브루스의 동생 닐(Neill)의 교수형과 능지처함형은 〈브레이브하트〉에서 윌리스의 교수형과 능지처참형과 교차될 수 있다. 〈아웃로 킹〉은 이와같은 방식으로 윌리스의 영웅서사와 연계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차별성을 강화하는 서사전략을 유지한다. 매켄지 감독은 대중 서사에서 이미 영웅적 위치를 확립한 윌리스를 〈아웃로 킹〉에 직접 등장시키지 않았지만, 윌리스의 사지를 길거리에 걸어 놓는 장면을 통해 브루스 중심의 영웅서사와 역사적 사실의 전유에 대한 각색자의 의도를 은연중에 드러낸다. 매켄지 감독은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의 두 전쟁 영웅의 교차를 통해 브루스의 새로운 영웅서사를 만든다. 이 글은 각색자 매켄지 감독이 〈아웃로 킹〉에서 역사적 사실의 전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역사적 견해와 관점 그리고 새로운 내러티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아웃로 킹〉의 역사 영화로서 차별성을 강조한다.

〈브레이브하트〉가 개봉되었을 때 영국에서 역사 왜곡의 문제가 제기 되었다. 반면, 독립투쟁의 역사가 있는 한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이 작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 영화는 수용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다. 또한 〈아웃로 킹〉은 역사적 고증이 비교적 잘 된 영화로 평가받지만,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의 관점에 따라 브루스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다. 이처럼 역사 영화는 수용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글은 매켄지 감독이 브루스를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의 영웅으로 서사화하려는 각색 의도와 역사 영화라는 각색작에 대한 관객들의 수용적 관점에서 새로운 영웅서사물의 부상을 제기한다.

2. 역사적 사실과 역사 영화

1) 역사적 사실의 전유

영화 창작 방법으로서 각색(adaptation)과 전유(appropriation)는 한 단어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각색은 재해석, 변경, 접목, 적용, 수용 등 다양한 현상과 의미를 함축하고, 전유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 이처럼 각색과 전유라는 창작 방식은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각색 이론은 정립한 린다 허천(Linda Hutcheon)에 따르면, 각색은 “잘 알려진 다른 작품들의 공인된 전위,” “재해석과 재창작 모두를 뜻하는 전유와 구원이라는 창조적/해석적 행위,” “각색된 작품과의 확장된 상호텍스트적인 참여” 등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는 다층적 개념이다.[1)]

각색과 전유를 좁은 의미에서 분류하자면, 각색은 제목 혹은 내포된 언급에서 원천 텍스트와의 관계를 드러내고, 전유는 영향을 준 텍스트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문화 상품 영역으로 진입하는 보다 과감한 여정을 실현시킨다.[2)] 전유는 원작(원천, 역사적 사실)과의 상호연관성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3)] 각색과 전유는 개념상 차이가 있지만, 원천 텍스트(source texts)에 지속적 관심을 확보하고 그리고 역동적 재생을 통해 정전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법론상의 유사점이 있다.[4)]

역사 영화는 역사적 사실과 명시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표명한 예술 장르이다. 줄리 샌더스(Julie Sanders)의 전유 이론을 종합하자면, “앞선 텍스트(역사적 사실)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앞선 텍

1) 린다 허천, 『각색 이론의 모든 것』, 2017. p. 8-9.
2) 줄리 샌더스. 『각색과 전유』, 2019. p. 53.
3) 같은 책, p. 62.
4) 같은 책, p. 158.

스트의 현존이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텍스트(역사 영화의 내러티브)에 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5] 있듯이, 역사 영화는 전유라는 극작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변형을 동반한 반복" 그리고 "인식과 기억" 및 "변화"를 통해 창작 작품으로 의미를 갖는다.[6]

허천과 샌더스의 각색과 전유 이론에 근거하면, 역사 영화는 그 자체로 역사적 사실의 전유이며, 역사적 사실의 전유는 재해석 또는 재조명이라는 창작물이다. 역사 영화는 전유라는 극작 방식을 통해 독창적 예술 작품으로서 고유성을 지닌 미적 대상물이다.

역사 영화에서 역사적 사건과 실제 인물은 원재료(원천)이다. 역사적 사실과 실제 인물은 영화 제작자가 역사 영화라는 예술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특정 사건이나 인물의 삶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을 의식적으로 전용하는 텍스트들이다. 역사적 사실의 전유라는 역사 영화 연구는 스코틀랜드 독립투쟁과 같은 특수한 영웅서사가 매체와 장르를 경유해서 변화해 가는 모습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하나의 텍스트는 역사 영화를 통해 〈브레이브하트〉와 〈아웃로 킹〉처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창조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역사적 사실과 역사 영화는 '유동적 텍스트'(fluid texts)가 된다.

유동적 텍스트는 각색자 의도에 따라 방향성이 정해진다. 각색과 전유는 복제하지 않는 반복이다. 그리고 각색 연구는 각색이라는 창작 행위의 배후에 있는 각색자의 창작 의도에 주목한다. 이런 이유로 역사 영화 연구는 각색의 '충실성'(fidelity) 논쟁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각색을 분석할 때 가장 적절한 기준은 원작에의 충실성이다"라는 충실성 논쟁은 각색 이론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다.[7] 원천(원작) 충실성에 가치를 두는 것은 각색의 본연의 의미

5) 같은 책, p. 51.
6) 같은 책, p. 48.
7) 같은 책, p. 114.

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원작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8]는 각색의 텍스트성을 반영하지 못한 논쟁에서 기인한다. 특히 역사적 사실의 전유와 역사의 영화화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관객의 수용과 판단, 새로운 장르 개척, 연속적 창작 활동, 분포의 다양성 등을 판단 준거로 삼는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역사 영화 연구는 모든 텍스트를 '인터텍스트'(intertext)로 간주한다. "모든 텍스트는 언어, 문화, 화법, 관심에 기댄 인터텍스트가 원 출처이다."[9] 역사적 사실이라는 충실성 논쟁에 매몰되어 역사 왜곡의 난맥에 빠지기 보다는 역사적 사실의 전유물 또한 하나의 인터텍스트로 봐야 합당할 것이다.

인터텍스트의 관점에서 스코틀랜드 출신 극작가 조안나 베일리(Joanna Baillie)는 역사 영화(역사극)를 하나의 장르 혹은 예술 작품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베일리는 역사 영화의 스토리를 역사 왜곡을 야기하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영화를 영웅적 인물들을 기억하는 "기념비적인 것"(memorials)으로 제시한다.[10] 기념비적은 것으로서 역사 영화는 각색자의 의도와 수용자(관객)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새로운 내러티브 그리고 예술적 유희를 가능하게 한다.

역사 영화는 감독이라는 각색자의 개인적 비전을 내포하고, 사회문화적 재배치 또는 최신화(동시대성)를 동반한다. 역사 영화 비평에서 감독의 창조적 의도는 간과될 수 없다. 매켄지 감독이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전유하는데 있어서 브루스의 영웅서사에 초점을 맞춘 이유를 각색자의 창작 의도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

8) 같은 책, p. 35.
9) Thomas Leitch, "Twelve Fallacies in Contemporary Adaptation Theory," p. 115.
10) Joanna Baillie, *Metrical Legends of Exalted Characters*, 1821. p. v.

넷플릭스의 영화제작자 스캇 스투버(Scott Stuber)는 한 인터뷰에서 “영화 제작자로, 이야기꾼으로서 데이비드의 재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강렬한 이야기를 더욱 꿈틀거리게 만드는 대단한 프로젝트에 그와 같이 해서 매우 흥분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같은 〈아웃로 킹〉 스토리가 지닌 보편적인 매력을 믿고 있다”라며, 〈아웃로 킹〉의 제작 의도를 밝힌다.[11] 매켄지 감독 또한 넷플릭스 인터뷰에서 “로버트 더 브루스(Robert the Bruce)의 이야기를 아주 심도 깊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에 가려져 있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스코틀랜드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엄청난 패배를 겪으면서 소수의 지지자들과 함께 도망자 신세가 되지만 용맹함과 계책으로 역경을 모두 이겨내는 로버트 브루스라는 캐릭터 ”의 영웅서사를 창작 의도로 밝힌다.

역사 영화의 현재성은 역사적 거리나 근접성에 얽매이지 않는다. 즉 역사 영화의 현재성(동시대성)은 영화적 각색을 통해 과거의 사건과 삶을 연계하여 역사의 텍스트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작된다. 더 나아가 역사 영화의 현재성은 당대의 시사 현안을 숙고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12] 역사 영화에 나타난 역사는 텍스트성(textuality)을 내포한 것으로, 특정 이념과 견해에 따라 특정 이야기꾼에 의해 말해진 이야기의 역사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는 스토리로 각색되기에 좋은 원천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역사적 사실은 역사 영화에서 새로운 해석과 향유의 장에 들어선다.[13]

역사적 사건, 역사 소설, 역사 비평, 역사 담론, 역사 영화 등 다양한 양식들 간의 우월성 논쟁 보다는 서로 다른 재현 양식들의

---

11) https://about.netflix.com/en/news/outlaw-king-from-director-david-macke nzie-commences-principal-photography-in-scotland

12) 줄리 샌더스, 『각색과 전유』, 2019. p. 232.

13) 같은 책, p. 239.

교차와 가로지르기에 대한 인식에서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장르가 부상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 사건의 전유는 "또 다른 기호 시스템의 재현"(a representation in another sign system)이다.[14] 역사 영화에서 역사적 사실의 전유는 역사적 사실을 가져오기가 아니라 가로지르기, 교차하기, 끼워넣기와 같은 다양한 기법과 방법론으로 완성된다. 역사 영화는 원작(원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끄집어낸 이야기에 새로운 의미와 내러티브를 부여한다. 역사적 사실의 전유는 역사라는 외적 사실에 새로운 의미 생성, 새로운 장르 개척, 대중적 상품화와 같은 예술적 생성을 가져온다.

2)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사와 〈아웃로 킹〉의 교차

〈아웃로 킹〉은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사의 관점에 따라 해석과 전유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의 전유라는 관점에서 이 작품을 비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스코틀랜드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역사는 로마제국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한다. 로마제국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시저, Gaius Julius Caesar, BC 100-44)가 브리튼 섬을 침공하면서, 브리튼이 세계 역사에 처음 등장한다. 서기 43년 로마제국은 브리튼 남부를 점령하고 통치하였다. 로마제국은 영국 북부를 점령하는데 실패하고, 이후 약 300년 동안 브리튼 섬을 로마제국의 영향권에 둔다. 로마 점령과 로마 문화 유입 이후 브리튼은 남부의 잉글랜드 문화와 북부의 스코틀랜드 문화로 나눠지기 시작한다. 〈아웃로 킹〉의 사회적 배경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갈등은 로마제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14) Andrew, Dudley. "Adaptation." Ed. Timothy Corrigan. *Film and Literature: An Introduction and Reader.* Routledge, 2012: 65-73. p. 66.

게르만 민족 대이동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게르만 민족이 로마제국을 침입하자, 로마제국은 게르만 민족을 막기 위해 로마 군대를 브리튼에서 철수시킨다. 로마 쇠퇴와 붕괴로 로만 브리튼은 5-6세기 바이킹 등 이민족의 침략과 북쪽의 픽트인(the Picts)의 침략을 받는다. 정치적 공백상태에 처한 로만 브리튼은 앵글로 색슨 민족을 용병으로 고용한다. 하지만 용병으로 고용된 앵글로 색슨 민족의 힘이 강해지자, 로만 브리튼과 앵글로 색슨 민족의 상황은 역전된다. 로만 브리튼은 앵글로 색슨 민족에 쫓겨 서쪽으로 혹은 북쪽 스코틀랜드로 이주한다. 이로써 앵글로 색슨 민족이 잉글랜드의 주요 민족군이 되어 잉글랜드의 지배층으로 부상한다.

바이킹 침입이라는 혼란스러운 8세기에 앵글로 색슨의 7왕국 중 웨식스(Wessex)의 알프레드 대왕(Alfred the Great, E848-899)은 7왕국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한편, 843년 브리튼의 북부에서 스코틀랜드 왕국이 설립되고, 로만 브리튼은 웨일스(Wales)로 이주한다. 이후 웨식스 왕조가 잉글랜드 전역을 통일한다. 웨식스는 나라 이름을 '잉글랜드'로 바꾼다.

〈아웃로 킹〉의 주요 등장인물인 에드워드 1세는 13세기 잉글랜드의 국가 체제를 마련한 성군으로 알려져 있다. 에드워드 1세는 최초로 의회를 소집하였고, 웨일스를 복속시켰고, 왕권을 강화했으며,[15] 스코틀랜드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고, 〈브레이브하트〉의 주인공 윌리엄 월리스와 〈아웃로 킹〉의 주인공 로버트 브루스를 반역자로 규정한다. 에드워드 1세 이전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에드워드 1세가 스코틀랜드를 침공하면서부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갈등의 역사에 휘말린다.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의 망치'(The Hammer of the Scots)

15) 영국의회 홈페이지 참조

라는 묘비명을 가질 만큼 스코틀랜드와 악연이 깊다.[16]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 독립전쟁 이전 스코틀랜드 섭정과 '대소송'(Great Cause)시기에[17] '스코틀랜드 왕국의 상왕'(superior lord)으로 등장한다.[18] 에드워드 1세는 윌리스 사후 2년 뒤 브루스가 스코틀랜드 귀족들과 함께 전군을 이끌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자, 이를 정벌하기 위해 북부로 진군하던 중 사망한다. 에드워드 1세는 〈아웃로 킹〉에서 아들에게 "내 시체를 불태워 그 재를 가죽 부대에 넣어 군사들과 함께 진군하고, 북부를 모두 장악하면 그 재를 스코틀랜드에 묻으라"는 유언을 남긴다.

한편 스코틀랜드의 던켈드(Dunkeld) 왕조의 알렉산더 3세(Alexander III, 1241-1286)가 낙마사고로 사망하자, 스코틀랜드에는 왕위계승자가 없었다. 스코틀랜드 귀족들 사이에 '왕위계승 분쟁'이 발생하였고, 귀족들은 에드워드 1세에게 스코틀랜드 왕위 선출 관련 중재를 요청하였다. 존 발리올(John Balliol, E1249-1314)이 1292년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에드워드 1세가 스코틀랜드의 내정에 간섭한다. 발리올의 왕권 약화와 에드워드 1세의 간섭이 심해지자, 스코틀랜드인들은 12인 평의회를 만들어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스코틀랜드를 통치하였다. 에드워드 1세는 프랑스와 스코틀랜드의 조약에 대한 보복으로 스코틀랜드를 침공했고, 이로써 〈아웃로 킹〉의 역사적 배경인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이 시작된다.

에드워드 1세는 1296년 스코틀랜드를 침공하였고, '제1차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이 시작된다. 1297년 앤드류 머레이(Andrew Moray,

---

16) David, Ross, *For Freedom: The Last Days of William Wallace*, Glasgow, 2006, p. 40.

17) 대소송은 에드워드 1세가 주도하여 바리올을 스코틀랜드 왕국의 합법적 왕위계승자로 선언한 사건이다.

18) E. L. G Stones and G. G. Simpson, *Edward I and the Throne of Scotland, 1290-1296: an Edition of the Record Sources for the Great Cause*. 2nd Vol. Oxford, 1978, p. 292.

E. 1270-1297)와 윌리스는 잉글랜드에 대항한 반란을 일으킨다. 윌리스를 비롯한 시민 주도의 반란군은 게릴라전으로 독립투쟁을 시작한다. '스털링 다리 전투'(Battle of Stirling Bridge, 1296)에서 스코틀랜드가 승리를 거두었고, 머레이는 전사를 하고, 윌리스는 '스코틀랜드의 수호자'(Guardian of Scotland) 칭호를 받는다. "스털링 전투 후 10개월 동안 윌리스가 스코틀랜드와 군대를 실질적으로 관리한다."[19]

반격에 나선 잉글랜드는 1298년 '폴커크 전투'(Battle of Falkirk)에서 스코틀랜드 군대를 격파한다. 폴커크에서 윌리스의 패배로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의 국면은 바뀐다.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독립투쟁'은 종료되고, 독립전쟁의 주도권은 귀족들에게 넘어간다. 폴커크 전투를 기점으로 스코틀랜드 영웅서사는 '윌리스의 영웅서사'에서 '브루스의 영웅서사'로 바뀐다.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의 영웅 윌리스는 '스코틀랜드의 수호자' 직을 박탈당하고, 1305년 처형당할 때까지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진다. 이후 브루스와 존 커민(John Comyn, 1274-1306)이 스코틀랜드를 통치한다.[20]

브루스는 윌리스 중심의 영웅서사에는 주목할 만한 영웅적 행동이 없었고 오히려 윌리스를 배반하는 반영웅적 행동을 하였다. 브루스는 윌리스 주도의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친-에드워드파로 추정된다. 브루스는 '스털링 전투'(1297)에서는 반-에드워드파로 추정되지만, '폴커크 전투'(1298)에서는 친-에드워드파로 추정된다. 브루스가 윌리스 시절에 친-에드워드였는지 혹은 반-에드워드였는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이 부분에 있어서 브루스에 대한 역사기술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최근까지 논란으

19) 홍성표, 「윌리엄 월레스와 스코틀랜드의 독립전쟁」, 『서양중세사연구』 22, 2008a. p. 95.

20) William Skene Ed, *John of Fordun's Chronicle of the Scottish Nation* 2. Edinburgh, 1993, p. 324.

로 남아 있다. 브루스가 정적이었던 커민을 살해하고 스코틀랜드 왕을 자임한 후 스코틀랜드의 독립투쟁에 적극적 개입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에드워드 1세는 브루스가 스코틀랜드의 왕임을 선포하자, 스코틀랜드를 다시 침공한다. 〈아웃로 킹〉에서 나타났듯이 브루스의 친족들이 살해되고, 브루스의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브루스는 아일랜드로 도피한다. 브루스는 1년 후 체제를 정비하여 다시 스코틀랜드로 진군한다.

브루스는 1314년 스털링의 '배넉번 전투'(Battle of Bannockburn, 6월 23일-24일)에서 대승을 거두고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선언한다. 배넉번 전투는 로버트 1세(Robert I, 로버트 브루스)가 이끄는 1만 명의 스코틀랜드 군과 에드워드 2세가 이끄는 2만 5천명의 잉글랜드 군이 격돌한 전투이다. 여기까지가 〈아웃로 킹〉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중요 역사적 사건들이다.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은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가 1296년 스코틀랜드를 침략했을 때부터, 1328년 에든버러-노샘프턴 조약(Treaty of Edinburgh-Northampton)으로 스코틀랜드의 독립이 선포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 전쟁은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군사 행동을 통칭이며, 〈아웃로 킹〉의 사회적 배경이다. 브루스는 이 시기 가장 대표적 전쟁 영웅이며, 스코틀랜드 영웅서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지만, 브루스의 영웅서사는 재현 장르에서 다른 시선과 관점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3. 각색자의 관점과 새로운 영웅서사

1) 〈아웃로 킹〉에 나타난 브루스의 영웅서사와 플롯

〈아웃로 킹〉은 14세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의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1304년을 기점으로 시작한다. 영화의 첫 장면은 브루스가 에드워드 1세에게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다는 충성 맹세로 시작한다.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 귀족들의 복종과 충성 서약 자리에서 잉글랜드의 발랑스(아이머 드 발랑스, Aymer de Valence)를 스코틀랜드의 식민 통치를 맡기는 총독 자리에 임명하고, 스코틀랜드의 왕위계승권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브루스와 커민에게 화해를 권유한다. 에드워드 1세는 브루스에게 "대항할 용기와 물러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며 브루스의 항복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대녀(god daughter)와 브루스의 결혼을 제안하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평화 체결을 마무리한다.

브루스의 아버지(아난델 백작, 로버트 브루스 6세)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평화체결과 발랑스의 의회장악은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종국에는 에드워드 1세가 브루스에게 스코틀랜드의 왕권을 넘길 것이라며, 스코틀랜드 왕권에 대한 오래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브루스는 아버지의 사망이후 온전히 주체적인 결심을 하는 인물로 탈바꿈한다. 브루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죽음은 새로운 영웅서사의 계기로 작용한다. 브루스는 세금을 납부하러가는 길에 윌리스가 능지처참을 당해서, 사지가 길거리에 걸려있는 장면과 '무법자 윌리엄 윌리스'(*The Outlaw William Wallace*)라는 풋말과 시민들의 격한 분노를 목도하고 마음 속 깊이 억눌러 놓았던 큰 결심을 한다.

브루스는 커민을 찾아가, 잉글랜드에 맞서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함께 이룩하고, 그 다음에 둘이서 정당하게 왕권을 겨루어 보

자고 제안을 한다. 커민이 브루스의 제안을 거부하자, 브루스는 교회 재단에서 커민을 살해한다. 브루스는 교회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한다. 주교는 교회에서 살인을 한 브루스의 신성모독죄에 대해 사면권을 발동한다. 이후 브루스는 스콘(Scone)에서 왕위에 오른다.[21]

에드워드 1세는 브루스를 무법자로 선언하고 스코틀랜드 정복을 향한 출정식을 한다.[22] 에드워드 1세의 아들 웨일스 왕자가 '드래곤 깃발'(Dragon Banner)을 들고 스코틀랜드에 도착하기 전, 발랑스의 잉글랜드 군대가 기습 매복 공격을 하여 브루스의 스코틀랜드 군대는 전멸 당한다.[23]

잉글랜드의 발랑스로부터 기습 매복 공격에서 살아남은 브루스를 비롯한 소수의 스코틀랜드 군사들은 가까스로 피신하여, 군사를 모으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브루스는 윌리스 시절에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매키넌 경(Lord Mackinnon)을 찾아가지만, 매키넌은 폴커크 전투에서 윌리스와 함께 하지 않았던 이유로 브루스의 제안을 거절한다. 브루스에게 있어서 윌리스 시절의 반-영웅적 행동은 그의 영웅서사에 있어서 원죄로 작동한다. 브루스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

21) 에드워드 1세는 6세기 이후 스코틀랜드의 스콘에 보관된 '운명의 돌'(Stone of Destiny)을 웨스트민스터 교회로 운반하였다. 스코틀랜드 왕들이 그 돌 위에 놓인 의자에 앉아 즉위식을 거행할 만큼, 운명의 돌은 스코틀랜드의 정통성을 상징한다. 운명의 돌은 〈브레이브하트〉의 상연 이후 1996년 스코틀랜드에 반환된다.

22) 잉글랜드의 왕자는 스코틀랜드의 반란군을 진압을 위한 백조의 향연(Feast of the Swans)이라는 출정식에서 살아있는 두 마리의 백조를 잡고 "이 백조를 두고 맹세하는 바"라며 맹세를 한다. 실제로 1306년 5월 22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267명의 기사단을 발촉하는 축하 행사가 있었다.

23) 웨일스 왕자는 브루스가 반란을 일으키자 "제가 드래곤을 들겠습니다"라며 아버지 에드워드 1세에게 반란군 진압의 의지를 보여준다. 드래곤 깃발은 잉글랜드의 군기이다. 왕자가 그래곤 깃발을 부여 받았다는 것은 왕자가 전쟁에서 전권을 부여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신만의 새로운 영웅서사를 만들어야 했다.

진격에 나선 브루스는 비밀리에 움직이고, 경고 없이 공격하고, 성을 다니면서 땅을 되찾고, 모두 불태우는 청야전술의 방식으로 승리를 거듭해 나간다. 브루스는 도망 다니면서 공격하는 방식을 마무리하고, 잉글랜드 군을 유인해서 야전에서 승리를 거두려는 작전을 짠다. 브루스의 전략과 전술은 브루스의 새로운 영웅서사의 일부이며, 불가능에 도전하고 하나씩 이루어내는 영웅서사를 반영한다.

브루스는 기병이 활약하기 힘든 습지가 있는 라우든 언덕(Loudoun Hill)에서 매복 작전을 비롯한 치밀한 작전으로 잉글랜드 군을 대파한다. 라우든 언덕 전투에서 월리스 시절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에 참여 했던 매키넌 경도 함께 한다. 매키넌 경의 참전은 새로운 영웅의 부상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계기가 된다. 이 전투는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의 전환점이 된다. 〈아웃로 킹〉은 브루스가 전쟁포로 교환을 통해 아내와 딸과 상봉하는 장면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2) 각색 관점과 브루스의 새로운 영웅서사

월리스는 〈아웃로 킹〉의 브루스가 제시하는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의 모티프 역할을 한다. 월리스는 브루스에게 리더십과 영웅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인물이며, 극복해야할 대상이었다. 베일리가 “월리스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브루스라는 존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했듯이[24], 〈아웃로 킹〉은 월리스와의 연계성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브루스의 영웅적 고뇌와 탁월한 능력

24) Joanna Baillie, *Metrical Legends of Exalted Characters*, London: Longman, Hurst, Rees, Orm, and Brown, 1821, p. xx.

그리고 중세적 사회적 배경에 관심을 두는 전략으로 차별적 영웅 서사를 강화한다.

〈아웃로 킹〉의 첫 장면에서 윌리스는 주요 논쟁적 인물로 등장한다. 브루스와 웨일스 왕자 사이의 결투에서, 윌리스가 순교자인지 반역자인지 혹은 미치광이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다.

> 웨일스 왕자: 윌리엄 윌리스, 마지막 반역자
> [...] 누군가는 순교자라고 생각하겠지,
> 미친놈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 브루스: 제 생각에는
> 자기 목숨보다 조국을 사랑한 사람 같아요.
> 웨일스 왕자: 외교적으로 말한다면 그렇겠지

윌리스는 잉글랜드의 왕을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고,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의 속국이 아니기 때문에 잉글랜드에 반역한 적이 없다고 천명한다. 윌리스는 잉글랜드에 대항해 반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반역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에 대한 잉글랜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윌리스를 반역자로 규정한다. 이러한 역사적 논쟁은 〈아웃로 킹〉에서도 지속된다.

〈브레이브하트〉에서 브루스는 윌리스와 끝까지 함께 하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윌리스를 배신한 인물로 등장하지만, 〈아웃로 킹〉의 브루스는 '윌리스에 대한 국민적 열망.' '잉글랜드의 무자비한 통치,' '스코틀랜드 왕위계승권에 대한 가문의 오랜 욕망'이 혼재한 가운데 윌리스와 함께 하지 못한 후회가 남아 있다. 브루스에게 있어서 윌리스와 아버지는 계승해야할 존재이며 극복해야할 존재였다.

브루스는 잉글랜드에 대항해 사실상 독립을 쟁취한 스코틀랜드

의 영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서사가 전개 된다. 브루스는 과감한 전략과 전술로써 에드워드 1세의 스코틀랜드 지배정책에 맞서 성공을 거둔 인물로서 높이 평가 된다.[25] 브루스는 스코틀랜드의 독립과 스코틀랜드 왕위쟁탈에 있어서, '폴커크 전투에서 잉글랜드의 진영에 가담,' '에드워드 1세에게 충성맹세,' '커민 살해'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다. 브루스는 윌리스, 에드워드 1세, 그리고 커민과의 관계에서 이중적 입장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브루스는 각각의 역사적 사건에서 복잡한 이해관계,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선택, 커민 살해 이후 주교에게 신성모독에 대한 사면의 대가로 스코틀랜드 교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정치적 판단과 응답을 하고, 에드워드 1세의 승인 없이 스코틀랜드 왕위를 스스로 계승했다는 점에서 영웅적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브루스는 정치 리더십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기발한 전략과 전술로써 독립전쟁에서 승리한다. 잉글랜드 군대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모든 곳을 불태우는 청야전술은 물론이거니와 라우든 전투에서는 게릴라 전법을 사용하였다. 라우든 전투에서는 보병들을 한 곳에 고정시키며 싸우는 전술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게릴라 전법으로 자연적인 은폐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보병이 중심인 스코틀랜드 군이 잉글랜드의 기병의 공격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매켄지 감독은 브루스의 새로운 영웅서사 만들기에 있어서 윌리스와 차별성을 부각시킨다. 매켄지 감독은 의욕이 앞서는 열혈남아 이미지가 아니라 고도의 전략가로서 브루스의 영웅서사에 주력하여 차별적 새로운 영웅서사 만들기에 주력한다.

〈브레이브하트〉에서 윌리스와 머레이가 영웅적 전사로 등장하

25) C. W. S. Barrow, *Robert Bruce: And the Community of the Realm of Scotland*, Edinburgh UP, 2006. p. 241.

였다면, 〈아웃로 킹〉에서는 브루스와 더글러스가 영웅적 전사로 등장한다. 브루스를 위한 새로운 영웅서사에는 제임스 더글러스(James Douglas, Black Douglas)라는 역사적 인물이 추가된다. 더글러스는 스코틀랜드 귀족들이 에드워드 1세에게 충성과 복종 맹세를 하는 첫 장면에서부터 등장한다. 제임스는 런던탑에 갇혀 사망한 윌리엄 더글러스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더글러스는 에드워드 1세와 각을 세우면서 브루스의 영웅서사를 뒷받침한다. 더글러스는 윌리스-머레이의 영웅서사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차별성을 부각시킨다.

윌리스와 브루스에 대한 재조명은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코틀랜드 정치사에서 민족주의, 개인주의, 능력주의, 계급투쟁 등 다양한 담론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스코틀랜드 민족주의자들은 다른 국가의 민족주의자들보다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어 행운이다. 자유에 대한 영감을 준 애국자인 윌리스가 잉글랜드로부터 스코틀랜드를 해방시켰다. 그는 봉건제의 속박으로부터 국민들을 해방시켰다"라는 주장하고 있으며, 제1차 세계대전 후 좌파 지식인들은 윌리스의 독립투쟁을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으로 설명한다.[26]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에서 윌리스의 영웅서사는 귀족과 왕권 너머 온전히 '시민 자유권'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운동에서 유의미하게 평가될 수 있다. 귀족의 입장과 새로운 시민권의 부상 사이의 미묘한 긴장 관계에서 브루스와 윌리스의 영웅서사는 다르게 조망될 수 있다.

---

26) *Scots Independent.* 6. June 1930.

4. 역사 영화와 수용의 맥락

〈아웃로 킹〉에 나타난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은 중세 역사와 깊은 연관 관계에서 조망될 수 있다. 스코틀랜드 독립의 최대 걸림돌은 스코틀랜드 귀족들 사이의 왕위계승 논쟁이다. 왕위계승 논쟁에 에드워드 1세라는 외세가 개입하면서부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의 민족주의적 독립전쟁이 시작된다.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운동은 왕권이라는 중세의 사회적 배경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왕권투쟁이라는 중세적 상상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아웃로 킹〉에 나타난 브루스의 영웅서사는 그의 극적 행동이 스코틀랜드의 독립투쟁이었는지 아니면 왕위쟁탈전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인다. 브루스가 잉글랜드에 대항한 투쟁이 진정한 스코틀랜드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민족주의 투쟁'이었는지 아니면 스코틀랜드의 왕위를 계승하려는 '권력투쟁'인지에 대한 논의는 중세사적 관점과 함께 브루스의 영웅서사에도 중요한 논점이다. 〈아웃로 킹〉에 나타난 브루스의 행적은 이 두 가지 논점을 긴장감 있게 교차하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브루스 가문의 왕권에 대한 오래된 욕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브루스 가문은 정복왕 윌리엄 시대부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모두에 토지를 소유한 앵글로 노르만 계열의 귀족이다. 로버트 브루스 1세에서부터 〈아웃로 킹〉의 주인공 로버트 브루스 7세에 이르기까지 브루스 가문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서부 경계지방을 통치하면서 스코틀랜드 왕위계승권을 주장하였다.[27]

바리올을 진압하고 스코틀랜드를 굴복시킨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

27) Ronald McNair Scott, Robert the Bruce, King og Scots, 1996. p. 109-111.

1세는 스코틀랜드 전역을 다니면서 자유 토지 보유자들에게 충성 맹세를 받아냈다. 〈아웃로 킹〉의 주인공인 스코틀랜드의 '캐릭 백작 로버트 브루스'(로버트 브루스 7세)도 에드워드 1세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 〈아웃로 킹〉에서 에드워드 1세가 충성맹세를 하는 브루스에게 "당신은 8년 동안 잘 싸웠으나, 늘 바른 편에 선 건 아니었소"라고 하였듯이, 브루스는 잉글랜드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역사에서 브루스는 충성 맹세 이후 아버지의 기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친애하는 나의 친구들, 최근에 내가 칼라일에서 충성맹세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강요에 의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육체의 위협 때문에 맹세를 한 것이지 나의 자유 의지로 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나는 깊게 참회한다.[28]

브루스의 영웅서사에서 문제적 논쟁거리인 충성맹세는 왕권을 갖기 위한 위장술로 서사화된다. 브루스는 아버지인 아난델 백작 로버트 브루스(로버트 브루스 6세) 때문에 그리고 중세적 사회적 상상계 때문에 윌리스의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에 적극 가담하지 못한 과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과정을 거친다.

브루스(로버트 브루스 7세, 캐릭 백작)가 폴커크 전투에서 잉글랜드 편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또한 논란거리이다. 〈브레이브하트〉에서 브루스는 폴커크에서 윌리스의 스코틀랜드 독립군이 아니라 잉글랜드의 편에 가담한다. 이러한 행동으로 판단한다면, 〈브레이브하트〉에 나타났듯이, 브루스는 왕위계승권 때문에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바리올에 대한 배신과 반역에 있어서도 브루스의 이중적 입장을

---

28) Colm McNamee, *Robert Bruce: Our Most Valiant Prince, King and Lord.* Birlinn Ltd, 2006, p. 64.

살펴볼 수 있다. 브루스가 잉글랜드 군에 가담하여 스코틀랜드 군과 싸웠기 때문에, 폴커크 전투에서 브루스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폴커크 전투에서 스코틀랜드 군에 가담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브루스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윌리스가 사임한 '스코틀랜드의 수호자'로 선출되었다.[29]

이러한 이중적 태도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기 이전 브루스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 브루스가 스코틀랜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에드워드 1세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전략가적 면모가 뛰어났던 브루스는 에드워드 1세의 폭정을 좌시할 수 없었다. 에드워드 1세의 스코틀랜드에 대한 종주권 주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왕위계승의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브루스는 자연스럽게 양편을 넘나드는 이중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브루스는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기 이전 항상 양면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에 가담하였다.

매켄지 감독은 넷플릭스 인터뷰에서 "로버트 브루스의 이야기를 아주 심도 깊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에 가려져 있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라고 한다. 결과론적으로 스코틀랜드는 브루스의 영웅적 행동으로 잉글랜드에서 독립을 했고, 브루스는 스스로 왕이 되어 독립선업을 했고, 교회로부터 정치 외교적으로 승인을 받는다. 길고 어려웠던 독립투쟁의 길에서 브루스가 겪었던 인간적, 권력적, 민족적 갈등은 〈아웃로 킹〉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새로운 영웅서사의

29) '스코틀랜드의 수호자'는 스코틀랜드 중세사에서 제1 공위기(1290-1292)와 제2차 공위기(1296-1306)에 사실상 스코틀랜드의 왕권을 행사하는 귀족들에게 주어진 칭호이다. 〈브레이브하트〉의 윌리스와 머레이는 1297년에서 1298년에 그리고 〈아웃로 킹〉의 브루스는 1298년에서 1300년까지 스코틀랜드의 수호자 칭호를 받았다.

기반이 된다.

역사 영화 비평에서 창작의 맥락만큼 수용의 맥락이 중요하다. 현재의 사건들이나 지배적 이미지들은 각색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우리의 해석과 지각을 조건 짓는다. 역사 영화와 같은 전유 작품을 생산하는 사회와 역사 영화가 수용되는 사회 사이에서는 일종의 대화와 소통이 발생하고, 역사적 사실과 역사 영화 사이에서도 대화가 이루어진다.

역사적 사실의 전유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은 수용의 맥락에서 의미가 빛을 발한다. 이 글은 역사적 사실의 전유가 갖는 학문적 관심 대상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역사적 사건과 현재 사건의 교차, 둘째, 가려지고 숨겨둔 사건과 인물을 찾아내서 재조명하기, 셋째, 현지화의 관점에서 수용의 맥락을 통해 새로운 장르로 인식될 수 있다.

아서 밀러(Arthur Miller)의 『시련』(*The Crucible*)과 1950년대 조 매카시(Joe McCathy) 상원의원 중심의 매카시즘에서 보듯이, 예술 작품(역사 영화)은 당대의 시대상과의 교차에서 의미가 완성된다. 역사적 사건은 그 자체의 풍부한 문학적, 창의적 내용뿐 아니라, 그 사건이 감독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당대 시사 문제와의 비교를 위해 묘사되고 전개된다.

피터 위도우슨(Peter Widdowson)이 강조하듯, "문학이 역사를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목적은 많다." 특히 잃어버린 목소리 또는 상실된 역사를 되찾는 전유 사례는 많다.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을 주제로 하는 〈아웃로 킹〉은 한국에서 특별히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독립투쟁의 역사가 있는 한국에서 독립투쟁의 영웅서사는 현지화(indigenization)의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다.

> 창작과 수용의 맥락은 문화적이고 개인적이며 심미적인 것이지만, 그런 만큼 물질적이고 공적이며 경제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심

> 지어 오늘날 지구화된 세계에서조차 스토리를 둘러싼 맥락에서, 말하자면 민족적 배경이나 민족적 시간대에서 일어나는 주요 변화들은 전위된 스토리의 이데올로기적이고 축자적인 해석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30]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을 다룬 역사 영화라는 유동적 텍스트는 한국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문화횡단적으로 수용되고 전위될 수 있다. 역사 영화에 나타난 독립투쟁의 맥락이 현지화의 관점에서 의미가 재조명된다. 역사적 사실과 역사 영화를 수용하는 사회에서 수용이라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스코틀랜드 독립투쟁과 대한민국 독립투쟁은 은연중에 교차된다. 치열한 독립투쟁의 역사가 있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수용의 맥락은 다를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을 전유하여 시대정신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문화 횡단적 관객들은 신비화를 뚫고 스스로 결론에 도출하게 된다. 즉 현지화는 현재성 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영화는 새로운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실의 변형이다.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다른 사회로 이식되어, 혼종적인 새로운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 역사를 비롯한 지나온 시대의 지식과 문화의 축적과 그 과정에 대한 해석은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31] 필연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시간과 공간의 시선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을 전유한 “텍스트는 해석의 끊임없이 변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보이는 무한히 교체하는 상호텍스트를 조장하고 그리고 조장된다.”[32] 이러한 새로운 자리매김은 시간의 경과와 장소의 변화에 의하여 더욱 복잡하게 된다. 역사적 사실과 역사

---

30) 린다 허천, 『각색 이론의 모든 것』, 2017. p. 90.
31) E. H. 카, 『역사란 무엇인가』, 김택현 역, 까치, 1997. p 36.
32) Robert Stam, p. 76.

영화 그리고 수용자 사이의 상호 텍스트적 대화를 통해 브루스의 영웅서사는 새로운 예술적 텍스트로 자리매김을 한다.

5. 나오는 말

셰익스피어 극작품의 각색과 전유가 하나의 문화예술 장르가 되었듯이,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은 역사적 사실을 전유한 역사 영화 〈아웃로 킹〉을 통해서 새로운 대중 서사물로서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셰익스피어 극작품의 지속적인 각색과 전유가 변화하는 취향, 쟁점, 가치를 나타내는 문화 지표 역할을 하고 있듯이[33],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사라는 역사적 사실은 〈아웃로 킹〉과 같은 역사 영화를 통해 새로운 장르의 세계에 진입한다.

〈아웃로 킹〉은 역사적 사실의 전유를 포함하여 여러 단계의 각색과 전유 과정을 거친다. 〈브레이브하트〉는 스코틀랜드 영웅서사시인 블라인드 해리(Harry the Minstrel, Blind Harry, 1440-1429)의 로맨틱 영웅서사시(*The Acts and Deeds of the Illustrious and Valiant Champion Sir William Wallace, Knight of Elderslie*)를 각색하고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전유한 역사 영화이다. 〈아웃로 킹〉은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브레이브하트〉의 영웅사서를 다차원적으로 전유한 역사 영화이다. 이 처럼 〈아웃로 킹〉은 여러 재현 양식과 텍스트들의 인터텍스트로서 예술적 창작물이다, 〈아웃로 킹〉은 이러한 유동적 텍스트의 힘과 인터텍스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코틀랜드 독립투쟁과 영웅서사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역사 영화가 된다.

---

33) 같은 책, p. 85.

역사 영화 〈아웃로 킹〉이 증명하듯이, "영화는 근대적 삶에 잘 맞는 미학적이고 사회적 힘을 가진 시적이고 내러티브가 있는 예술이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과 역사 영화 그리고 수용의 맥락에서 다채로운 '창조적 교환'(creative exchange)이 이루어진다.[34] 역사 영화는 각색과 전유 이론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양식과 장르의 변천에 따른 다시 말하기 과정을 통해 수용의 맥락에서 현지화 그리고 현재성을 확보하여 상호텍스트성을 갖는 예술 장르가 된다. 또한 스코틀랜드 독립투쟁과 같은 특정 스토리는 역사의 영화화를 통해 새로운 친숙한 내러티브가 된다. 각색과 전유라는 극작 방법론과 유동적 텍스트들의 창조적 교환을 통해 역사 영화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원천(원자료) 너머 새로운 미학적 창작물이 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Outlaw King. Dir. David Mackenzie. Netflix, 2018.
〈*Outlaw King* Script〉
https://subslikescript.com/movie/Outlaw_King-6679794

2. 논문, 신문기사, 기타 인터넷 자료

홍영표. 「윌리엄 월레스와 스코틀랜드의 독립전쟁」. 『서양중세사연구』 22. (2008a): 89-124.
———. 「로버트 브루스와 스코틀랜드 독립전쟁」. 『역사와 담론』 50. (2008b): 205-240.

34) Timothy Corrigan, "Testing and expanding the value of film and literature, 1915-1940," p. 18.

Scots Independent. 6. June 1930.
〈영국의회의 기원. 영국의회 홈페이지〉 https://www.parliament.uk/about/living-heritage/evolutionofparliament/originsofparliament/birthofparliament/overview/edward/
〈데이비드 매켄지 감독, 영화제작사 인터뷰〉 https://about.netflix.com/en/news/outlaw-king-from-director-david-mackenzie-commences-principal-photography-in-scotland

3. 단행본

샌더스, 줄리. 『각색과 전유』. 정문영, 박희본 옮김. 동인, 2019.
카, E. H. 『역사란 무엇인가』. 김택현 옮김. 까치, 1997.
허천, 린다. 『각색 이론의 모든 것』. 손종흠 외 옮김. 앨피. 2017.
Andrew, Dudley. "Adaptation." Ed. Timothy Corrigan. *Film and Literature: An Introduction and Reader*. New York: Routledge, 2012: 65-73.
Baillie, Joanna. *Metrical Legends of Exalted Characters*. London: Longman, Hurst, Rees, Orm, and Brown, 1821.
Barrow, C. W. S. *Robert Bruce: And the Community of the Realm of Scotland*. Edinburgh: Edinburgh UP, 2006.
Corrigan, Timothy. "Testing and expanding the value of film and literature, 1915-1940." Ed. *Film and Literature: An Introduction and Reader*. New York: Routledge, 2012: 17-24.
Leitch, Thomas. "Twelve Fallacies in Contemporary Adaptation Theory." Ed. *Film and Literature: An Introduction and Reader*. New York: Routledge, 2012: 104-122.
McNamee, Colm. *Robert Bruce: Our Most Valiant Prince, King and Lord*. Edinburgh: Birlinn Ltd, 2006.
Ross, David. *For Freedom: The Last Days of William Wallace*. Glasgow: Luath Press Ltd, 2006.
Skene, William F., Ed. *John of Fordun's Chronicle of the Scottish Nation* 2. Edinburgh: Create 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1993.
Stam, Robert. "Beyond Fidelity: The Dialogics of Adaptation." Ed. James Naremore. *Film Adaptation*. New Brunswick: Ruters UP, 2000:

54–76.
Stones E. L. G and Simpson, G. G. Eds. *Edward I and the Throne of Scotland, 1290–1296: an Edition of the Record Sources for the Great Cause*. 2nd Vol. Oxford: Oxford UP, 1978.

(투고일: 2021.11.03 심사완료일: 2021.12.20. 게재확정일: 2021.12.22)

홍은숙
소 속: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주 소: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전자우편: eshong@dongguk.ac.kr

[Abstract]

Appropriation of Historical Facts in *Outlaw King*

Hong, Eun-sook

This paper, in emphasizing the uniqueness of *Outlaw King* as a history film, delves into various adaptation theories to appropriate historical facts as source texts. It searches for not only the adapter's intention to newly narrate a hero of the Scottish independence movement but also the transnational audiences' different perspectives. *Outlaw King* makes a new heroic narrative for Robert the Bruce, who agonizes between the scottish civil revolutionary movement and the Scottish succession to the throne by appropriating historical facts.

Intertextuality of history films is completed by the context of reception and localization. Critical reviews for *Outlaw King* differ from the transnational audiences whose histories have similar movements. Criticism of history film has its own aesthetic power beyond the distortion of history. History film reaches a new conclusion based on the appropriation of historical facts which represents the social imaginary and zeitgeist. In this context, *Outlaw King* takes the roles of fluid texts and intertexts.

Key words: appropriation, fluid texts, historical facts, history film, *Outlaw King*